

# 2019년 국내외 학술대회를 통해 본 ‘사회적 가치’ 공론화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 가치 법제화 전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학자 및 법률가 등과의 긴밀한 연구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전략사업실 부연구위원)

1. 2019.9.19.  
www.mediasr.co.kr/  
news/articleView.  
html?idxno=54490
2. 2019.10.2.  
www.mediasr.co.kr/  
news/articleView.  
html?idxno=54711
3. 2019.10.17.  
www.mediasr.co.kr/  
news/articleView.  
html?idxno=54950
4. 행정연구원
5. 한국개발연구원
6. 중앙대학교
7. 이화여자대학교
8. 국민대학교
9. 사회적가치연구원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아이쿱협동조합

한국법제연구원은 혁신성장지원법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회적 가치 콜로키움」과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 「국내학술대회」 및 「사회적 가치 국제학술대회」를 차례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선행연구자와 전문가들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동시에 학제간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총 여덟 번에 걸쳐 마련한 콜로키움을 통해 ‘사회적 가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향후 연구 토대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어진 세 차례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은 사회적 가치 법제 구현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의 구현: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제1차)<sup>1</sup>,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제2차)<sup>2</sup>, 및 <조세 법제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방안>(제3차)<sup>3</sup> 등의 세부 주제로 개최되었다. 발표는 강정석 선임연구위원<sup>4</sup>과 김정욱 선임연구위원<sup>5</sup>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정도진 교수<sup>6</sup>, 김대인 교수<sup>7</sup>, 안경봉 교수<sup>8</sup>, 정아름 박사<sup>9</sup>, 오영오 실장<sup>10</sup> 과 신창섭 사무장<sup>11</sup> 등 민간과 공공부문 전문가가 맡았으며,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열띤 토론의 장황을 마련하면서 향후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참가자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



제2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2019.10.2.)



기조발제자인 바트 홀라한



사회적 가치 국제학술대회(2019.11.15.)

**클로키움 Timeline**

- 2019.3.14.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사회적 가치 구현사례 배성기(사회적가치 연구소(SVI) 소장)
- 2019.3.28. 최근 기업의 사회적 가치 동향과 시사점 김녹영(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 2019.4.4. 사회적 가치의 이해 김호기(연세대학교 교수)
- 2019.4.1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의 현장과 대응 이종재(PSR 공공기관 사회적인 연구원 대표)
- 2019.6.20. 기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 화폐가치 환산 라준영(가톨릭대학교 교수)
- 2019.7.4.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점에서의 사회적 가치의 산출 임영관(광운대학교 교수)
- 2019.9.17.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회사형태: 미국의 Benefit Corporation을 중심으로 윤세리(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 변호사)
- 2019.9.26. 환경과 사회적 가치 최재천(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12. 제26대 서울대학교 총장

13. <https://blog.naver.com/klri/221710982996>

평가하는 방법론 구축이 시급하며, 이는 법제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쟁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논의는 2019년 10월 26일(토) “사회적 가치와 법사회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법제연구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법사회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도 지속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사회적 가치와 법사회학, <사회적 가치와 법의 역할>, <사회적가치와 사법司法>, <법사회학 방법론> 및 <사회적 가치와 노동> 등 총 다섯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김정오 연세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상수 한국법사회학회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 학술대회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관한 논의를 ‘법학’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견인하고자 했으며, 사회적 가치 법제 구현 전략 수립의 국제적 담론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조성하였다.

끝으로 2019년 11월 15일(금) 열린 「2019 사회적 가치 국제 학술대회」는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 전략Strategic Approach to Implement Social Value Through Legislation”을 주제로 사회적 가치의 세계적 확산과 동향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날 윤호중 국회의원과 성낙인 명예교수<sup>12</sup>가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바트 홀라한Bart Houlahan B-Lab 공동설립자는 “기업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의 당위성과 세계적 동향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베네픽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의 법제화 과정과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어졌다. 미국의 「베네픽 코퍼레이션 모델법」 성안자인 윌리엄 클라크 주니어William H. Clark, Jr. 고문은 회사가 단지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베네픽benefit’을 추구하여도 상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도록 공익회사에게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모델법의 주된 내용임을 강조했다. 한편 빠울로 디 체자레Paolo Di Cesare Navita Lab 공동설립자는 “이 같은 법제화 움직임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탈리아에서의 최근 법제화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 날 객석에는 약 8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발표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또한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사회적 가치 법제화 전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학자 및 법률가 등과의 긴밀한 연구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sup>13</sup>